

# 더민주연합·조국혁신당 광주서 비례대표 지지 호소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9일 오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지자가 준 손팻말을 들고 있다. /남영주기자mjna@kwangju.co.kr

## 더민주연합 “윤 정권 제대로 심판하기 위해 힘 모아야” 조국혁신당 “광주의 선택은 언제나 정치 변화의 출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9일 잇따라 광주를 찾아 비례대표 정당 지지를 호소했다.

광주가 민주당의 '뒷밭'으로 분류되는 지역인 만큼 진보 진영 세력이 막판 표심 결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운영덕·용혜인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서미하·전종덕·김윤 등 광주·전남 출신 비례대표 후보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0.73%p 차이로 정권을 넘겨줬다. 통탄의 작은 차이로 대한민국의 민생, 미래, 민주, 평화가 모두 무너졌다”며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심판하고 정권을 교체하려면 야권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보들은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 30명은 모두 ‘현장형 실천 전문가’라며 “후보들은 생활 속에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사회·정치적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실질적 개혁을 추진해 왔던 사람들로, 단순한 전문 지식뿐 아니라 현장의 풍부한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입법과 정책을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여러 법안, 불통과 무능, 날로 높아지는 가계부채와 물가, 함께 출산을 개선 등은 검찰 독재 종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가 망친 민생, 민주, 미래, 평화를 모두 회복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비례대표 후보들과 광주 동구 충장로 우체국 사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열고 “4월10일은 유권자의 (권리 행사)뿐만 아니라 그 표를 통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날이고,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의 ‘심판관’이 되는 날”이라며 “심판관이 되어 우리의 표로 윤석열 정권 지난 2년의 실정과 비리를 심판하자”고 말했다.

조 대표는 “재외투표율, 사전투표율이 역대치를 기록했다”며 “본투표에서도 역대 기록을 만들어주

시면 좋겠다. 단순히 조국혁신당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범진보 민주 진영이 승리하는 그런 길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기대했다.

그는 창당 이후 첫번째 일정과 지방 유세 마지막 일정으로 광주를 찾은 이유를 묻는 말에 “대한민국 역사에서 광주의 선택은 언제나 정치 변화의 출발이 됐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의 모든 출발은 광주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목표 의식에 대해 “2월13일 창당 선언 이후 목표 의식을 10%+α(알파)에서 한 번도 비관 적이 없다”며 “근래 여론조사에서 더 나은 결과가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목표 의식을 높일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한 달이 약간 남은 시간 동안 전국에 계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조국혁신당을 응원해 주신 이유는 지금까지 조국혁신당이 보여왔던 태도와 기세, 결기, 결의 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한달간 유지해 왔던 자세를 앞으로도 유지하고 공언했던 것을 꼭 지키고 싶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정당 간 정책의 차이, 국회법상 상임위안건조정위 과정에서 다른 당 2개가 필요한 점을 들며 국회에 입성하더라도 민주당과 합당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본도 없다.

2000년 16대 총선 이후로 좁혀 보면 총선 최고 투표율은 4년 전 21대 때의 66.2%였다. 만약 이번 선거 투표율이 70%대에 도달한다면 ‘21세기 들어 최고 기록’을 세우는 셈이다. 이번 선거 사전투표율은 31.3%로, 21대 총선보다 4.6%포인트(p) 올랐다. 이런 분위기가 본투표까지 이어지면 70%대 투표율도 달성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 총선 투표율 ‘70% 벽’ 돌파 여부 촉각

4·10 총선 최종 투표율이 32년만에 ‘70%의 벽’을 돌파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전국단위 선거를 보면, 대통령선거는 투표율이 60~80% 선에서 움직였지만, 총선 투표율은 그보다 낮은 추세를 보였다.

전국단위 선거 최고 투표율은 1987년 13대 대선의 89.2%였다. 그러나 총선 최고 투표율은 1988년 13대 총선의 75.8%로 대선보다 10%포인트(p) 이상 낮았다.

총선은 그다음 선거인 1992년 14대 때 71.9%를 기록한 이후 투표율 70%를 넘어서지 못한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尹 “AI 3대 국가로 도약하겠다”

2027년까지 9.4조원 투자...반도체 경쟁 국가총력전

### 국가AI위원회 신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AI와 AI 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AI 반도체 혁신 기업의 성장을 돕는 1조4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주요 국가의 투자 환경과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직접 제시하며 “AI 기술 분야에서 G3(주요 3개국)로도 약하고, 2030년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30년간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듯,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신경망 프로세스(NPU), 차세대 고대역 메모리(P-HBM) 등 AI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해 AI 반도체 분야 민

관 협력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생성형 AI를 넘어서는 차세대 범용 AI 기술과 AI 안전 기술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만 강진에 따른 TSMC 반도체 공장 일부 가동 중지 등에 대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앞으로 상황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조금의 빈틈도 없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 관계 부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 취약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즉각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622조원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에 대해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급용수는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말했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함께하는 100년 동행

## 서광주농협

아름다운 동행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쿼!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쿼!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외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빛고을로지점 062)528-2640~2  
배틀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